

2월 양돈경기 흐리다



정 호 풍
(본회 지도부장)

1. 머리말

요즈음 낙동강 오염에 대한 보도가 연속되고 있거나 와 이는 도시화, 산업화에 의한 반대급부로 빚어지는 양상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에 대한 농업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미국의 요청에 의해 식량산업의 안방을 저들에게 넘겨준다면 우리의 농촌은 더욱 삭막해지고 도시화 현상은 더욱 심각해져서 공해문제는 매우 크나 큰 속도로 등장될 것이 뻔하다. 기계문명이 발달되고 GNP가 상승한들 우리의 강산이 썩어진다면 우리의 풍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보릿고개 시절이 그리워진다. 낭만의 비를 맞으며 거리를 활보하던 배고팠던 시절이 차라리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북의 동포들이 배고프다 하지만 대동강물은 마음껏 마실 수 있다면 그게 더 부자가 아닐까.

2. 영농조합법인 설립

농어촌 발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축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 수출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법인 설립을 용이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법인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계상의 혜택을 주는데 10명이 결성한 법인이라면 5천만원까지는 소득금 발생에 대하여

비과세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법인 설립을 함으로써 개인보다는 정부 융자금 받기가 용이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다. 각 지부에서 이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므로 본회에 영농조합법인 정관예를 수록하였으니 참고바란다. 그런데 법인설립만 해놓으면 식육 직판장이든 사료 공동구매자금이든 저절로 대출해 주는 줄로 오해하는 농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각 법인들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출자를 해야 하며 시대에 걸맞는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사업계획을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그에 따른 자금유자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식육 직판장 운영

돼지고기에 대한 생산자 직판장이 전국에 속속 들어서고 있으므로 정육업자들의 담합된 가격을 분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앞으로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됨으로써 직판장 설립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지만 1차산업을 하던 양축농민이 3차산업을 경영하는 데는 애로점도 많은 것이다.

지난 1월 10일 전국 직판장 운영자들이 모여서 향후 대안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지만 일반 정육점과 같이 밤늦게까지 영업을 할 수 있고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을 상주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종결됨을 보았다. 그리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모임과 선진지 견학 등을 갖기로 하였다.

〈표1〉'92/'93년 사육두수 및 사육호수의 변화

(12월 1일 기준)

		계	1~99두	100~299	300~499	500~999	1,000~4,999	5,000두이상
두 수	'92.12	5,463천두	1,001천두	1,105	987	1,050	875	445
	'93.12	5,928	721	1,392	986	1,302	1,017	510
	증감	465	▲280	287	▲1	252	142	65
호 수	'92.12	98,736호	88,219	5,829	2,580	1,581	481	46
	'93.12	70,376	57,400	7,879	2,534	1,925	586	52
	증감	▲28,360	▲30,819	2,050	▲46	344	105	6
호당보유		84두	13	177	389	676	1,735	9,807

4. 냉장육 들어올 것인가?

미국에서 냉장육으로 삼겹살만 떼어서 부분육화하려 면 그들의 커트과정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그들이 일본시장에 등심, 안심, 어깨등심 등을 수출할 때도 그런 과정을 밟느라 1년은 걸렸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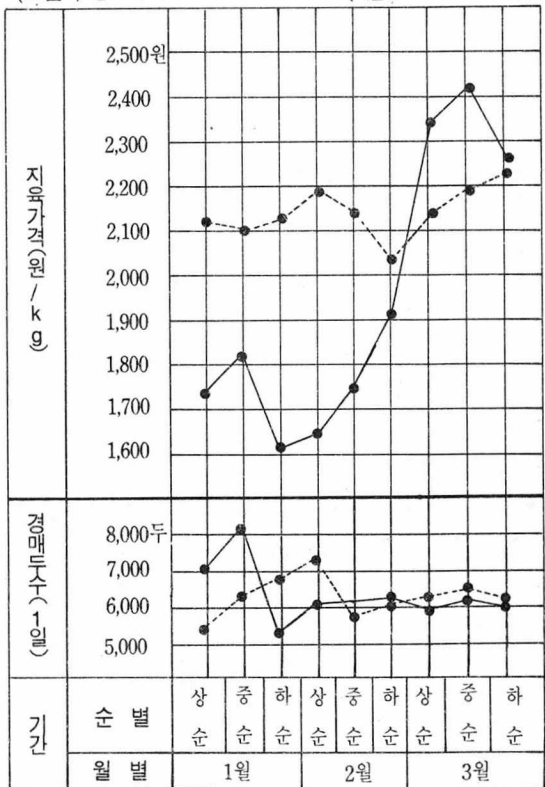
미국이 우리나라에 돼지고기를 수출한다면 역시 삼겹살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5. 2월 경기 전망 흐리다

1월 전반기의시세는 지육단가로 2천1백원대에서 보합세를 유지해 주고 있음을 본다. 설날은 이제 1개월도 못남아 있으니 구정 대목까지는 강보합세를 유지해 줄 것이다. 하지만 떡국먹는 구정은 쇠고기의 선호가 높으며 돼지고기는 크게 영향받지 않는 것이니 큰 기대는 할 수가 없을 것이다. '93년말의 돼지두수 통계에 의하면 5백9십2만 8천두로서 '92년 12월에 비하여 46만 5천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육호수는 7만호로서 '92년 12월보다 2만 8천여호가 감소하였다(표1 참조).

대별하면 대규모(500두 이상)는 호수와 두수가 증가하였고 500두 미만의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재미 있는 것은 특별히 100두~300두가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가족노동 규모로 하다가 어려워지면 치우겠다 하는 양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생산비 절감의 요소를 가장 많이 안고 있는 무시 못할 부류라고도 생각된다.

〈그림1〉 경매두수 및 가격 동향 (서울 3개 도매시장 기준)



비육돈중 4~6개월령이 130만두이며 2~4개월령이 2백만두로 집계됨을 본다. 2~4개월령(2백만두)이 출하되는 시발점은 2월 하순이 될 것이므로 2월도 시세는 저조하지 않을 수 없겠다. 3월부터는 회복되는 시기이지만 출하대상축이 많음을 보면 크게 오르는 못할 것이다. 양돈 시세도표(그림1)를 참조하기 바란다. **■**